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.12(금) ~ 2024.1.18(목)

제공일시 2023 03 15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.12(금) ~ 2024.1.18(목)

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### 1. 美 환경보호청, '메탄배출 감축' 위한 세금 신설 예고

-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'메탄 배출세'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계획임을 예고함
- 14일(현지시간) 폭스뉴스에 따르면, 미 환경보호청(EPA)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메탄배출량을 규제하고, 규제 한도를 어기는 경우 벌칙금 형태로 '폐기 메탄 부담금'이라는 세금을 올해부터 매기는 방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함
- 올해부터 메탄배출량 1메트릭톤당 900달러(약 118만원)를 부과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1200달러(약 157만원), 내후년에는 1500달러(약 197만원)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

(글로벌이코노믹 2024.1.15) 김현철 기자

### 2. 프랑스, 신규 원전 건설 늘린다

- 프랑스 정부가 원전 건설을 확대할 방침임.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모습임
-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, 프랑스는 새로 짓는 원전 수를 기존 6기에 8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. 오는 2035년까지 총 14기 원전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것임. 프랑스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
- 프랑스는 자국 에너지 믹스에서 현재 60%를 넘는 화석연료 비중을 2035년까지 40%로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원전 의존도를 늘리고 있음

(더구루 2024.1.13) 홍성환 기자

### 3. '흑연 수출통제' 나선 중국, 한국 배터리업체들엔 수출 허가

-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,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은 허가한 것으로 전해짐
- 14일 업계에 따르면,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순 배터리 소재업체 포스코퓨처엠으로 공급될 음극재 제조용 구상흑연의 수출을 승인함. 중국 정부는 또 LG에너지솔루션, SK온, 삼성SDI 등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한국 배터리 3사로의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출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짐
-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미중 양국 정상이 '양국 관계 안정화'를 강조했고, 한중 양국 역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이 당장 '수출 불허'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
- 다만, 중국이 수출 통제를 앞세워 핵심 광물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만큼 향후 미중 관계를 비롯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'수출 제한'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봄

(연합뉴스 2024.1.14) 차대운 기자

### 4. '대만 반도체 지원법' 시행 임박, 라이칭더 당선으로 TSMC에 더욱 힘 실린다

- 대만 정부가 TSMC 등 자국 반도체기업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'대만판 반도체 지원법'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
-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자가 반도체산업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만큼 TSMC를 향한 정부 지원정책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
- 15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, 대만 경제부는 2월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원하는 반도체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힘. TSMC와 미디어텍, 리얼텍 등 대만 주요 반도체기업이 신청서 제출 의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됨
- 대만판 반도체 지원법이라 불리는 새 정책은 매년 연구개발에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는 기업이 연구비의 최대 25%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임

(비즈니스포스트 2024.1.15) 김용원 기자

### 1.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손질 예고... 예상배출량→절대량 변경 검토

- 환경부는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함
- 개선 방안의 목표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와의 정합성을 위해 절대량 방식의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임
- 현재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'예상배출량(BAU)'을 구한 뒤 감축률을 곱하도록 돼 있음. 반면, NDC는 2018년 기준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대량을 관리함
- 다만,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문별로 관장하는 부처가 달라 발전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, 운송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식임. 이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업종과 부문별로 관리부처의 감축 여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감축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를 제시할 방침임
- 또, 계획기간 신규 도입, 이월 및 차입 등 유연성 확보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설계함. 배출권 거래제,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등 다른 감축제도와의 연계도 모색함

(전자신문 2024.1.16) 최다현 기자

### 2. 닷 올리는 공급망기본법... 정부, 기금 5조원 조성 착수/공급망 3법 완료... “배터리 업계 내재화율 높여야”

- 오는 6월 ‘공급망기본법’ 시행을 앞두고, 정부가 최대 5조원의 기금 조성 절차에 착수함
-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,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에 필요한 정부 보증 규모를 5조 원으로 보고,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임
- 기금은 수입선 다변화, 대체기술 개발, 국내 유턴 기업 지원,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쓰임
- ‘공급망 3법’ 입법이 모두 완료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수직계열화 지원 등 내재화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- 향후 중국 등 핵심광물 공급 측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, 공급망 3법 등 정책적 지원 방향 역시 수입 다변화나 자원 비축보다 내재화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림

(연합뉴스 2024.1.16) 송정은, 박원희 기자

(디지털투데이 2024.1.16) 석대건 기자

### 3. 중기부, ‘CBAM 대응 전담 조직’ 만든다... ‘인프라 지원’ 신설

-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(CBAM)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함
- 중기부는 먼저,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, 경영애로 부담을 덜기 위해 ‘맞춤형 정책금융’을 지원함. 또, ‘피터팬 증후군’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두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·세제를 지원함
-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전(全)주기에 대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지원함

(뉴스1 2024.1.11) 이민주 기자

### 4. 내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지 2개소 구축

- 내년 중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한 청정수소 생산기지 2개소가 구축됨
- 2개 수소 생산기지가 추가로 가동되면 국내 하루 수소 생산량이 1000kg 늘어날 전망이다
- 환경부는 11일 공고를 통해 ‘2024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지원 대상자’를 모집한다고 밝힘. 모집 대상자는 지자체운영사업자 1개소와 민간운영사업자 1개소임

(이투뉴스 2024.1.11) 유정근 기자

## 1. GE, 미국 최대의 풍력 프로젝트 수주... 10년 안에 풍력 터빈 기술자 45% 증가

- 제너럴 일렉트릭(GE)이 미국 최대의 풍력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해상풍력과는 달리 육상풍력의 업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(인팩트온 2024.1.11) 송준호 기자
- GE는 9일(현지시각) 자사의 에너지 사업부가 서반구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고, 수백개의 개의 터빈을 제작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힘
- GE가 수주한 프로젝트는 '선지아(SunZia)'로, 미국의 발전기 및 기타 장비 제조업체인 패턴 에너지(Pattern Energy)가 주도하고 있음
- 선지아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대형 풍력발전소에서 애리조나주까지 이어주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임. 3.5기가와트(GW)의 풍력 단지과 885km의 송전선로가 건설될 예정임

## 2. 블랙록, 대체인프라 투자회사 GIP 인수

- 블랙록은 탈탄소화, 에너지 안보, 디지털 인프라, 공급망 전환 등에서 인프라 투자기업으로 유명한 GIP(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)를 125억달러(약 16조3812억원)에 현금 및 주식거래로 인수한다고 발표함 (ESG투데이 2024.1.12) 마크 시걸 기자
- GIP는 에너지, 교통, 디지털, 수자원 및 폐기물 부문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인프라 주식과 신용 전략 등 1000억달러(약 131조원)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독립 인프라 운용사로, 다수의 주요 재생에너지 기업 및 폐기물 업체를 보유 중임
- 블랙록은 12월 2024 사모시장전망에서 저탄소 전환을 주요한 테마로 잡고,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'대규모 자본 재분배'를 강조하면서 인프라를 주요한 투자기회로 꼽은 바 있음

## 3. 中 빠져나가는 애플... 에어팟 제조사, 베트남에 공장 개설

- 애플의 에어팟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 고어텍(Goertek)이 한국 기업이 들어선 베트남에 공장을 개설할 예정임 (세계일보 2024.1.16) 현지용 기자
- 16일(현지시간)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, 중국의 음향 부품 전문사이자 애플의 에어팟 및 헤드셋 등을 생산하는 고어텍은 베트남 박닌 성에 새 공장을 지을 예정임
- 고어텍의 이번 투자는 애플이 더 많은 생산을 위해 공장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왔음

## 4. 테슬라가 美 LA서 짓는 '신개념 슈퍼차저', 올 연말에 개장

-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사 중인 신개념 슈퍼차저가 올 연말에 개장할 전망이다 (글로벌이코노믹 2024.1.14) 김현철 기자
- 13일(현지시간) 테슬라라티에 따르면, 테슬라는 LA 중심지에 속하는 웨스트할리우드에 위치한 부지에서 당초 계획대로 식당과 드라이브인 영화관을 부대 시설로 갖춘 복합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축 공사를 지난해 11월 시작함
- 현재 해당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## 5. 유리창마다 태양광 패널, 미래엔 빌딩숲이 발전소

-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가 빌딩 벽면에 붙여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패널 건자재의 생산을 2030년까지 3배로 늘림 (파이낸셜뉴스 2024.1.11) 김경민 특파원
- 향후 건자재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되면 현재 일본 국내에서 가동되는 태양광 발전에 맞먹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됨
- 회사는 2030년까지 현재의 3배인 연간 30만㎡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음. 이는 도쿄 돔 6.4개를 모두 두를 수 있는 규모임

## 1. SK에코플랜트, 美 네바다주와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등 협력 논의

- SK에코플랜트는 14일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테스(TES)의 라스베이거스 공장에서 조 롬바르도 미국 네바다주 주지사와 비즈니스미팅을 가졌다고 밝힘
- 이날 미팅에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롬바르도 주지사는 SK에코플랜트 및 테스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비롯해 전기·전자폐기물(E-waste) 사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눔
-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“미국 네바다주는 전기차·배터리 산업의 요충지이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아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서도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”며 “SK에코플랜트의 환경·에너지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만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
(전자신문 2024.1.14) 윤희석 기자  
(핀포인트뉴스 2024.1.14) 김수현 기자

## 2. 삼성SDI, 캐나다니켈 지분 투자로 북미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

- 삼성SDI가 전기차(EV)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캐나다 니켈 생산업체 ‘캐나다니켈컴퍼니(Canada Nickel Company, 이하 캐나다니켈)’에 1850만달러(약 244억원)를 투자했다고 글로벌엔메일이 13일(현지시간) 보도함
- 이번 투자로 삼성SDI는 캐나다니켈의 지분 8.7%를 보유하게 됨. 또, 삼성SDI는 캐나다니켈의 ‘크로포드(Crawford)니켈-코발트 황화물 프로젝트’의 지분 10%를 1억500만달러(약 1380억원)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됨. 양사간 합의에 따라 생산량의 20%에 대해 15년간 연장 가능한 추가 권리도 보유하게 됨
- 이 파트너십은 EV 배터리 제조의 핵심 부품인 니켈과 코발트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됨

(글로벌이코노믹 2024.1.14) 홍정화 기자

## 3. STX, 남미 리튬 사업 확장… 페루 리튬 광산 지분 인수

- 글로벌 종합상사인 STX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리튬을 확보하고 리튬 정광(제련을 거쳐 순도를 높인 광물) 트레이딩을 위해 페루 현지 리튬광산의 지분을 획득했다고 10일(현지시간) 레디민(redimin)이 보도함
- 이는 STX가 리튬 사업을 확장하고, 전 세계 리튬의 약 60%가 매장된 남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의 일부임
- STX는 페루 동남부 푸노주에 위치한 리튬 광산의 지분과 리튬 정광의 운송·판매 오프테이크(생산물 우선확보권) 권한을 확보함

(글로벌이코노믹 2024.1.12) 홍정화 기자

## 4.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전기차 본격 생산… 현지 정부 인센티브 지원

- 기아가 유럽 생산기지인 슬로바키아 공장 증설과 동시에 늘어나는 공장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본격 전환함
- 지난해 3분기 기준 현지 공장 가동률이 100%를 초과한다 올해부터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로 했기 때문임
- 투자 금액도 산정됨. 오는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1억800만달러(약 1430억원)를 투자할 예정임. 이는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금액(약 2540억원)의 일부로, 구체적인 생산 라인 전환 투자 비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
- 현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도 확보함. 슬로바키아 경제부(Ministerstvo Hospodárstva Slovenskej Republiky, MHSR)는 소득세 감감 형태로 2995만유로(약 430억원)를 지원하기로 함

(더구루 2024.1.11) 윤진용 기자

## 5. SK 계열사, 차세대 배터리-ESS 공략 속도… “협업하고 합작사 짓고”

- SK 계열사들이 협업,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음. 국내에 집중돼 있던 사업 영역을 해외, 차세대 에너지로 확대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임
- 17일 SK온은 지난주 폐막한 ‘CES 2024’에서 솔리드파워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
- 또, SK가스과 SK디앤디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클린에너지와 합작법인 ‘SA 그리드 솔루션’을 설립하고, 에너지저장장치(ESS)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을 16일(현지시간) 체결함

(이투데이 2024.1.17) 김해욱 기자  
(아시아경제 2024.1.17) 최서윤 기자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.12(금) ~ 2024.1.18(목)

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호주 정부,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하는 신규 법안 초안 발표

- 지난 12일(현지시각) 호주 정부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후 변화,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기후 관련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
-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호주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임
-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친환경 에너지의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기후 변화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
- 이 법률 개정안은 2022년 12월 호주 재무부가 기후리스크 공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'디스커버리 컨설팅'을 시작한 후 2023년 6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의무화 요건 시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. 지난해 10월 호주 회계기준위원회(AASB)는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보고 표준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
- 이 법안이 의결 수렴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호주는 기업의 모든 거버넌스 또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, 통제 절차뿐만 아니라 물리적 기후 위험 및 기회, 측정 기준 및 목표에 대해 보고해야 함
- 새로 제안된 법안은 모든 상장기업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(ASIC)에 연례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됨
- 호주 금융당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. 특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감사된 연간 재무 보고서를 올해부터 ASIC에 제공해야 함
- 이 법안에는 또한 Scope(스코프) 3 보고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포함돼 있음. 기업은 공시 시작 일로부터 추가로 1년 동안 간접 가치 사슬 배출량과 보고 책임 적용에 대해 보고할 수 있음. 2027년 6월 말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일부 면책이 적용됨
- 또한, 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기후 변화 관련 보고에 대해서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함. 기업은 재무제표 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 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
- 초안에 대한 의결 수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9일 마감할 예정임

(임팩트는 2024.1.17) 유미지 기자